사 설

지역사회가 학생수 감소에 관심보여야

우리지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지역 16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의 학생수가 43%나 감소했으며, 특히 거진과 현내지역은 감소 추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지역 학생수 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가정에서 신생아의 탄생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생아 탄생이 적은 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자치단체나 지역사회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은 개선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 우리지역의 학교들은 매년 꾸준하게 건물이나 운동장 등 각종 학교시설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서, 외형적인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쁜 것은 없다. 문제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열의가 부족한 것이다. 본지 보도에서 거론했다시피, 인근 속초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들이 고성으로 전근을 오면 수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다.

교사들의 수업 열의가 학생들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게 하는 것은 교사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가르치지는 못하더라도, 교사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 성심껏 가르치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고성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교사들에게서 이런 마음 자세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속초에서 고성으로 전근 오는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잠시 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심정은 속상하기만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가 "고성지역의 교사들 대부분이 속초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 열정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고성에서 근무하는 일선 교사들이 보다 열정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속초시의 아이들과 고성군의 아이들이 다른 점이라곤, 단지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것 뿐이다. 흔히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하듯이,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있다면 부모가 가난하고,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이 덜 하다는 정도다.

이와 함께 지역 학부모들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는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교사들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열의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자녀를 맡긴 학교와 교사들에게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수 감소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그때그때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며 현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현재 학생수의 절반이 줄고, 20년이 지나면 학생이 아예 한명도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가 학생수 감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행정에서는 교육계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선국 칼럼

시인, 죽왕면장

말의 힘, 글의 힘

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말은 맑고 청량한 느낌도 있고,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사랑스런 말도 있고, 사탕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운 말도 있다. 또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섭고 살벌한 말도 있고, 도심의 오수처럼 역겹고 지저분한 말도 있고, 힘과 용기가 솟는 응원의 말도 있고 맥 빠지는 허망한 말, 가식적인 말과 진심어린 말, 위로와 칭찬의 말 등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기호를 언어 혹은 말이라고 한다.

언어는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 주는 특징의 하나이다. 지구상 모든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지능이 높은 유인원(類人猿)일지라도 사람과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침팬지의 새끼를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같은 환경에서 길러 보았으나 사람과는 달리 침팬지는 언어를 습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언어습득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

따라서 사람은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습득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교적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유아기에,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정식 언어교육도 없이, 또한 지능의 차이에도 관계없이 언어를 습득하는 보편적 사실로 보아 선천적인 언어능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 많은 언어학자 · 동물학자 · 심리학자들이 과연 사람만이 언어를 가진 것인가, 동물도 교육에 의하여 언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 아래 동물언어 실험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결과 반복적인 집중학습에 의하여 몇몇 단어, 많게는 400여 단어를 습득했으며, 이를 구사하여 아주 간단한 문장(sentence)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으나, 정밀하게 다시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장의 사용은 단지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보상에 의한 재강화 또는 단순한 모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무리 수준 높은 동물이라도 사람과 같은 언어는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언어는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터넷지식백과는 밝히고 있다.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을 많이 하자

우리는 살면서 어떤 말을 쏟아놓고 무슨 말을 귀담아 듣고 살고 있는지? 무의식중에 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진심어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나에게 큰 이익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다. 반대로 우리는 정치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말실수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 순간의 이익에 급급하거나 나오는 대로 내뱉은 말은 그 지도자는 물론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다.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작가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 중에서 "내 입에서 나와 상대의 귀로 흘러 들어가는 말 한마디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새겨야 한다. 말을 내뱉는 것은 쉽고 순식간이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평생토록 가져가야 한다. 말이란 게 이토록 어렵고 중요하다. 말이 주는 놀라운 힘을 믿고, 말을 잘하자."

말한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말이 곧 그 사람이고 에너지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은 놀랍다고 한다. 글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힘을 가진다. 그러므로 말을 책임 있게 잘 해야 하고 글은 더 잘 써야 한다. 그리고 말할 때는 믿음이 가도록 또박또박 자신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편안하게 말하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일상에서 가급적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의 힘으로, 글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편집국에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정안진 칼럼위원이 모처럼 좋은 글을 보내왔다. 한때 방송구성작가로 일하다 현재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 생활을 하는 그녀는 이번에 보낸 '우리 가족의 소풍'이란 글에서 어린 시절 오봉마을에서 지낸 추억을 감동적으로 그렸다.

우연히 영화 '집으로'를 관람하던 중,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외할머니에게 '심술'을 부렸던 과거를 돌아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다. 특히 병상에 누워 있는 그 오봉 외할머니가 쾌차하면, 가족들과 오봉으로 소풍을 오고싶다는 대목은 코를 찡하게 만든다.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 · 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 · 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